



첫 '노동절' 공휴일 앞두고 '반값 휴가' 지원 확대

- 4월 27일부터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4만 5천 명 추가 모집, 총 14만 5천 명 수혜
- 지방 소재 기업·근로자에게는 더 두터운 혜택,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법정 공휴일 지정 후 첫 '노동절'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하 문제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공사)와 함께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이른바 '반값휴가' 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유가로 위축된 국민 여행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노동자 3만 5천명, 중견기업 노동자 1만 명 추가 지원,
지방 소재 근로자에게 지원금 2만 원 추가 지급

우선,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규모를 당초 10만 명에서 14만 5천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3만 5천명, 중견기업 노동자는 1만 명 규모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4월 27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에 더해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에 근무하는 참여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2만 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 중 지방 소재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지역 내수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추가 지원금은 5월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4월 30일부터 한 달간 대중교통을 활용한 친환경 여행을 권장하기 위해 '반값휴가' 홍보 행사 '출발 부담 제로'를 진행한다. 고속철도(KTX),

렌터카, 대중교통 패키지 상품에 대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최대 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5월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 원 숙박 할인과 함께 신규 가입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웰컴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온라인 몰 ‘휴가샵(vacation.benepia.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상생 협력이다.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은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휴가비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복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최근 씨제이이엔엠(CJ ENM)은 협력사 직원 300명의 휴가비를 지원한 바 있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러한 상생 지원 방식을 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고유가로 위축된 내수 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문체부는 첫 ‘노동절’ 공휴일을 맞아 지방 소재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온기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추가 모집 포스터

담당 부서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미경 (044-203-2811)
		담당자	주무관	허병선 (044-203-2818)





내 돈 20만원으로 떠나는 40만원 여행찬스

정부 10만원	+	기업 10만원	+	근로자 20만원

+

프로모션 활용 시
최대 26만원 추가 혜택
(기간 한정 할인쿠폰, 페이백 이벤트 등 포함)

모집 기간	1.30(금)~14만 5천 명 정부지원금 소진 시까지
참여 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신청 방법	vacation.visitkorea.or.kr 접속 → 기업 단위 신청
신청 문의	☎ 1670-1330 ✉ vacation.benepia@mnservice.co.kr
사용처	전용 휴가샵 물에서 기차, 숙박시설, 입장권 등 구입 가능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착순 모집,
지금 신청하세요!**
”

